2차 구조조정 '살생부' 전국 15곳 올라

광주·전남 저축銀 추가 퇴출 긴장

금융관계자 "지역 저축은행 재무구조 탄탄"

보해저축은행 등 현재 영업정지중인 저축은행 외에 추가로 15곳이 금융당국의 하반기 공동검사 대상명단에 오른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들이 추가 퇴출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로 구성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2차 구조조정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초 구조조정에서 8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데 이어 살아남은 98개 저축은행을 두고 2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 예보는 재무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큰 저축은행 15곳에 대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인 대한과 동양, 무등, 센트럴, 스마트, 골든브릿지 등은 '하반기 살생부'를 두고 긴장감이 역력하다.

실제 이 지역 저축은행들의 재정상태는 부동산 PF 대출과 맞물려 있는 탓에 건설사 도산 등이 이어지면 재무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7일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저축은행은 악성채무를 나타내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지난 3월 29.86%로, 전년(12.82%)에 비해 2배를 훌쩍 뛰어넘은데다 전국 평균(10.62%)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연체비율도 24.31%에 달해 지난해(17.53%)보다 늘었다. 흥익저축은행과 대운저축은행 등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2개 은행의 부실률이 전체 부실률 집계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광주지역 저축은행도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지난 2월 11.61%로 지난해 12월(7.83%)에 비해 4%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 금융권에서는 6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은 비교적 안전한 상황이라며 추가 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 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발 위기가 계속됐음에도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재무구조가 탄탄함을 역설하는 것"이라며 "최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서도 더 이상 지역 저축은행 중 퇴출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동양이나 스마트 등 최근 새주인을 맞은 은행들은 재무구조가 괜찮은데다 은행권 임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안심해도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추가 구조조정 계획은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잘 하라는 의미의 '다그침'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9월 중 연간 실적(지난해 7월~올해 6월)이 공시되면 부실 우려가 있는 곳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5000만원 미만 예금자들이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느껴 예금을 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나서 하반기 구조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갤럭시SII 바르샤바서도 인기 26일(현지시각)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 II 런칭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7개 저축銀 '3 패키지' 매각 … 인수전 '후끈'

금융지주회사·보험사·증권사 등서 관심

부실이나 유동성 악화로 시장 매물로 나온 '7개 저축은행 인수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금융지주회사들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7개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KB금융·신한지주 "인수 의향 있다"=7개 저축은행은 ▲중앙부산+부산2+도민 ▲전주+부산 ▲대전+보해 등 3개 패키지로 나눠 팔린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계 금융지주회사와 대형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들이 저축은행 입질에 나섰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6일 개최한 저축은행 입찰 설명회에서도 상당수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는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주요 지주회사들과 삼성생명과 동부화재, 대한생명,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2금융권 회사들이 참석했다. 이들 가운데 제일 먼저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출사표를 내기로 확정했다.

신한지주는 한 곳 패키지 입찰에 참여키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강원은행을 인수한 신한지주가 이 지역에 강점이 있는 도민저축은행이 포함된 패키지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금융도 한 개 패키지에 인수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나 대상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B는 '전주+부산저축은행' 패키지 인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나금융도 저축은행 인수 의향이 있다. 하나금융은 그러나 이미 충청권 기반의 충청은행을 흡수한 만큼 일각에서 거론된 것처럼 '대전+보해저축은행' 패키지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외 BS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부산과 대전, 보해 등의 저축은행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등 2금융권 '눈치 보기'=보험·카드·캐피탈 등의 2금융권 금융회사들은 눈치보기를 하면서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인수 후보로 메리츠화재, 대한생명, 현대캐피탈 등이 거론됐다. 대한생명을 계열사로 둔 한화그룹은 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등의 증권회사도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지주회사 내 수신 기능 확보를 위해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이 있지만 이번 인수전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7개 저축은행, 8월까지 매각 완료…영업재개=7개 저축은행은 이르면 8월 중 계약이전 등을 마무리하고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보는 30일 인수의향서를 받아 실사를 거친 뒤 6월 말~7월 초 본입찰을 실시해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경제 성장세

제조업 생산·수출 호조 … 소비 감소폭은 축소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26일 내놓은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3월 중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2%가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제조업 생산에서 자동차·트레일러(+60.7%), 기타기계·장비(+40.1%), 고무·플라스틱(+18.2%) 등이 특히 호조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6% 상승했다.

전남도 석유정제(+16.4%)와 화학제품(+15.8%)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 올랐다.

3월 중 광주·전남 건축착공면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상승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광주는 상업용(+56.9%)의 호조에 힘입어 지난 2월 -12.2%였던 감소세가 3월 +1.5%를 기록했다. 3월 말 기준, 미분양아파트도 805호로 지난 2월(964호)에 비해 159호 감소했다.

전남의 건축착공면적은 지난 2월 +76.6%에서 3월 +12.8%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구제역 및 이상한파 진정 등으로 이어지던 감소폭이 축소했다. 지난해와 비교, 지난달 -7.7%였던 지수는 3월 들어 -2.3%를 기록했다. 3월 중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광주는 2월 -4.9%에서 3월 +13.9%로, 전남은 2월 -0.3%에서 3월 +13.8%로 전환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권익위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강요 안돼"

앞으로 금융기관 등의 사업자가 고객을 상대로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함부로 강요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사업자들이 자사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 동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런 권고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꼭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외의 동의사항을 구분하도록 했다.

또 해당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체신청' 62년만에 역사속으로

전국 9개 체신청 '지방우정청'으로 명칭 변경

우편 등의 업무를 맡아오고 있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체신청'이라는 이름이 62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29일 전남체신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남체신청 등 우정사업본부 산하 전국 9개 체신청이 30일부터 '지방우정청'으로 명칭을 일제히 변경한다.

전국 9개 체신청은 전남체신청을 비롯해 서울·경인·부산·전북·강원·경북·제주·충청체신청 등이다. '전남체신청'은 '전남지방우정청'으로 바뀐다.

'체신청'이라는 이름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으로 바뀐 뒤 전파업무를 같이 취급하던 시기에 사용하던 체신청 명칭이 현재 업무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우체국과 우편·금융업무와 연계하는 '우정청'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체신'이라는 이름은 1895년(고종 32) 4월 한성과 인천 등 24개소에 농상공부 대신의 관리에 속하는 '우체사'를 설치, 농상공부 통신국 체신과라는 이름으로 우편과 금융, 전신, 전기 등 근대적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시작됐으며 1949년 지방체신관서설치법이 공포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체신청(우체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서광주농협장에 문병우 후보 당선

서광주농협은 지난 27일 열린 12대 조합장 선거에서 문병우(46) 후보가 당선됐다고 28일 밝혔다.

문 당선자는 2015년 3월까지 서광주농협을 이끌게 된다.

문 당선자는 "지난 8년간 부정선거 등으로 시끄러웠던 서광주농협을 잘 이끌어가겠다"며 "조합원 단합과 직원 화합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역농협 중 20위권인 서광주농협은 금품선거로 인해 2년여마다 조합장 재선거를 치렀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또복권 (제44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6	10	19	20	44	1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327,597,584	9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48,570,644	41
3	5개 숫자 일치	1,193,883	1,668
4	4개 숫자 일치	50,000	74,414
5	3개 숫자 일치	5,000	1,193,233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7계>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0타경 36429	1	북구 일곡동 849-1 101동 8층 802호 59.915㎡	아파트	85,000,000 85,000,000	
2010타경 41629	1	광산구 신창동 1108-1 신가부영아파트 111동 16층 1601호 84.9873㎡	아파트	110,000,000 110,000,000	
2010타경 43700	1	동구 학동 676-1 아남아파트 101동 10층 1003호 59.76㎡	아파트	80,000,000 80,000,000	
2011타경 625	1	서구 쌍촌동 155 현대아파트 108동 6층 606호 84.420㎡	아파트	134,000,000 134,000,000	
2011타경 3488	1	광산구 신창동 1108-1 신가부영아파트 108동 10층 1003호 84.9873㎡	아파트	120,000,000 12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0타경 41438	1	담양군 창평면 해곡리 448-1 331㎡	대	56,211,200	일괄매각.제시외
		동소 448-1 99.9㎡ 제시외 창고 등 78㎡	단독주택	56,211,200	건물포함
2010타경 44802	1	남구 월산동 20-22 169㎡	대	70,738,920	일괄매각.제시외
		동소 20-22 49.91㎡ 부속건물 문간6.94㎡[현황멸실] 제시외 방 등 28.9㎡	단독주택	70,738,920	건물포함
2011타경 441	1	동구 산수동 549-5 185.8㎡	대	103,058,360	일괄매각.매각외
		동소 549-5 18평1홉 외2층 3평4홉 제시외 창고 등 14.86㎡[제시외건물[기호ㄱ,ㄴ,ㄷ,ㄹ]포함매각]	단독주택	103,058,360	타인소유제시외건물존재.2011타경670[중복]
2011타경 2638	1	남구 주월동 989-29 90.2㎡	대	59,663,000	일괄매각.제시외
		동소 989-29 1층48.315㎡ 2층33.27㎡ 부속건물 변소0.675㎡ 제시외 통로 8.43㎡	단독주택	59,663,000	건물포함-임차인 있음
[대지/임야/전답]					
2008타경 47747	1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706-29 950㎡	임야	85,500,000 85,500,000	
2010타경 34768	1	영광군 영광읍 신월리 산96 6412㎡[현황전 및일부묘지]	임야	9,217,370 9,217,370	일괄매각.공유자 양미란지분15분의 2전부.목록1,4 분묘소재.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동소 산96-3 303㎡	도로		
		동소 산96-4 227㎡[현황:답]	임야		
		동소 산98 4760㎡[현황:전및일부묘지]	임야		
2010타경 39794	1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695-13 1386㎡	답	27,720,000 27,7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 2638	2	남구 승촌동 844-3 496㎡[과수목[유실수] 포함매각]	전	15,488,000 15,48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 3624	1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1478 793㎡	전	14,274,000 14,27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1481 1554㎡	전	27,972,000 27,97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1타경 2768	1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304 지층72.39㎡ 1층262.05㎡ 2층245.60㎡ 3층245.60㎡ 4층245.60㎡	속박시설 및일반음식점	650,341,080 650,341,08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임차인 있음
		동소 304 1005㎡ 제시외 주차장 58.8㎡[현황:인접토지일부점유]	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1. 6. 13.[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1. 6. 20.[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입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ㅁ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1. 5. 3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남주